

광주시, 가을 이벤트 통합브랜드 'G-페스타' 연다

지역 예술축제·행사·미스 등 통합 9~10월 중 18개 행사 22일간 개최 시·자치구·ACC 등 10개 기관 협약 "체류형 관광환경 마련·마케팅 총력"

광주의 가을 이벤트 통합브랜드인 'G-페스타 광주'의 성공 개최를 위해 광주시와 자치구, 지역 문화기관들이 힘을 모은다.

광주시는 1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선대학교, 동구·서구·광산구 등 자치구, (재)광주비엔날레, 광주관광공사, 광주문화재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9개 기관과 'G-페스타 광주' 공동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G-페스타 광주'는 광주에서 매년 9~10월 열리는 예술·맛 축제와 행사, 미스(MICE)를 한데 아우르는 가을 이벤트 통합브랜드다.

미스(MICE)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의 영문 앞글자를 딴 말로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주축으로 한 유망 산업을 뜻한다.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들은 △'G-페스타



강기정 광주시장, 임택 동구청장,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박양우 (재)광주비엔날레 대표, 노희용 광주문화재단 대표 등이 1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가을 이벤트 통합브랜드 'G-페스타 광주' 공동추진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가을 이벤트 통합브랜드인 'G-페스타 광주'의 성공 개최를 위해 상호협력 △ 통합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지원 △ 행사 간 연계콘텐츠 개발, 관광상품운영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동노력 △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등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18개의 다양한 행사가 22일간 열리는 'G-페스타 광주'는 축제의 계절인 가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자 예술여행도시, 맛의 도시 광주의 매력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관광객 체류시간을 확대해 다양한

관광관광자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관광객이 광주만의 매력을 충분히 만끽하고 돌아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개최 시간과 장소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 마케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G-페스타 광주'는 '예술' 콘셉트의 시즌1 '조이풀(Joyful) 광주'와 '맛' 콘셉트의 시즌2 '테이스티(Tasty) 광주'로 나뉘어 열린다.

시즌1 '조이풀(Joyful) 광주'는 9월25

일부터 10월6일까지 △광주비엔날레(광주비엔날레재단) △광주 에이스페어(광주관광공사) △광주사운드파크페스티벌(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프리미어페스티벌(광주문화재단) △아시아문화페스티벌(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선대학교 총장배 e스포츠대회(조선대학교)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광주 동구) 등 12개 행사가 열린다.

시즌2 '테이스티(Tasty) 광주'는 10월 17일부터 10월26일까지 △광주식품대전

(광주관광공사) △광주김치축제(광주시) △광주 송정 남도맛 페스티벌(광주 광산구) △광주서창역새축제(광주 서구) 등 6개 행사가 펼쳐진다.

광주시는 앞으로 실무협의회에서 개별 축제, 행사의 정체성과 강점을 유지하면서 통합 홍보, 연계행사 개발, 관광상품 발굴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 'G-페스타 광주'의 그림을 그려갈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 협약은 'G-페스타 광주'라는 하나의 '연결 지음'으로 축제와 축제를 연결해 시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 마련했다"며 "'G-페스타 광주'를 통해 우리 광주의 축제가 더욱 풍성해지고 서로 상상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민선8기 들어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꿈틀도시'를 위해 어등산 그랜드 스타필드, 더현대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등 복합쇼핑몰 3종 세트와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 등 관광기반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 계절별 명확한 콘셉트를 기반으로 한 축제 개최, 통합 연계로 도시 매력도를 높여 도시이용인구 3000만시대를 구제화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광주시 '제4차 시민단체협의회 토론회' 개최

오늘 시청서 지역현안 해법 모색

광주시가 시민사회단체와 광주 발전을 위한 협력과 연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소통을 이어간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11일 시청 시민홀에서 '제4차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토론회'를 개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시정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1월30일 첫 번째 소통을 가진데 이어 지난해 7월12일 2차 토론회에서는 풍양호수, 복합쇼핑몰, 보육대체교사 등 지역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3월26일에는 '중앙공원1지구 관련 시민공청회'를 열어 시민단체와 끝장토론을 벌였다.

특히 4차 토론회는 지난해 7월12일 제2차 토론회에서 민선 8기 2년이 되는 시점에 2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시정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전은옥 광주시 정책기획관이 '민선8기 2년 현황'에 대한 설명에 이어 기우식 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이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광주시정 2년' 평가를 발표한 뒤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한 4개 주

제와 광주시가 제시한 2개 주제에 대한 토론의 시간으로 진행된다.

시민사회단체는 △여성(저출생 정책, 여성폭력 시설 지원 확대 제안, 성평등 정책 등) △지방자치와 행정혁신 △환경과 교통(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등) △도시 문제(자산IC, 대규모 공공 건축물 전환, 도시철도 2호선 등) 등 4개 주제에 대한 질문과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군공항(추진 현황 및 시민사회와 협력 방안 등) △대자보 도시(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사회 의견 수렴 및 협력 방안 등) 등 2개의 주제를 가지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민선 8기 2년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바탕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굵직한 시정현안을 잘 풀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관협치협의회 활성화를 비롯해 민간공원, 5·18통합조례 제정 등은 시민사회와 협력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이다"며 "민관협력이 한걸음 더 나아가 소통하면 광주가 지켜지고,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와 하나가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자치경찰위, 폭우 대비 도민 안전 총력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전남자치경찰위)가 여름철 폭우에 따른 홍수통제 발령 등 상황에 도민 안전을 위한 자치경찰 업무에 총력을 다한다.

전남자치경찰위는 지난 9일 광주에 있는 영산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홍수 등 자연재난과 관련해 자치경찰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당부했다.

영산강홍수통제소는 전남지역 영산강, 섬진강, 탐진강의 홍수정보를 관리하고 관찰 지자체에 홍수통제 정보를 전파하는

등 하천 홍수 등 통제와 수문조사 관측 및 홍수 예보와 댐 조작 관리, 하천유량관리 등 업무를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마철을 맞아 댐이나 보의 방류 승인 등 홍수통제 발령 시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해줄 것을 당부하고, 자연재난 피해 방지를 위해 전남 자치경찰위원회와 영산강홍수통제소 간 협력사업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방안 모색

시니어클럽 종사자 워크숍 개최 사례중심 맞춤형 노무교육 진행

전남도가 11일까지 이틀간 여수 디오센터에서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지원기관) 종사자 워크숍을 열어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 사례 중심의 맞춤형 노무교육에 나섰다.

시군과 시니어클럽 관계자 150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는 종사자의 경험과 역량 공유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하도록 질적 향상을 꾀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시니어클럽은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온열질환 예방 교육 등 안전교육을 하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다.

오세경 노무법인 대표가 노인일자리사업 중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사례 중심 노무교육을, 김태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차장이 신규 일자리 개발과 질적 향상 방안

을 강의한다.

특히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도 갖는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어르신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특히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폭염 대비 등 안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한눈에 보는 출산지원' 책자 개정판 발행

사전건강관리·냉동난자시술 안내 '실질적 출산 지원정책 확대 추진'

전남도가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등 신규·개정 사업을 알기 쉽게 정리한 '한눈에 보는 출산지원' 책자 개정판을 발행했다.

주요 신규사업은 임신 희망 부부 대상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임력 보존을 위한 '냉동 난자 시술비 지원사업',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등이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여 13만원·남 5만원 이내)를 지원해 임신 전 장애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냉동 난자 시술비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난소기능검사 수치가 1.5 이하인 30~40세 여성을 대상으로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 냉동 시술비의 50%(최대 200만원·1회 지원)를 지원한다.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는(난소기능검사 수치 1.0 미만) 20대 여성도 지원한다.

결혼 여부는 무관하나 기준중위소득 180% 이내여야 지원 가능하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냉동난자를 사용해 보조생식술 시술을 받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부부당 최대 2회, 회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소득 및 거주지 등 기준 완화와 사업 규모 등 확대 시행 등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지원, 영유아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소득기준을 폐지해 누구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폭염·영농철 대비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전남도는 농업인들에게 8월 폭염과 9월 영농철 등에 대비해 보험료의 최대 100%를 지원하는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생긴 온열질환과 신체 상해, 질병 등에 따른 치료비와 간병비까지 보장하는 보험으로, 올

해 지원 사업비는 전체 153억2500만원(보조122억6000만원·자부담 30억6500만원)이다.

가입 보험료는 상품 중기보험인 일반1형 기준 약 9만8000원으로,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가 지원되는 만큼 농업인은 20%인 약 2만원만 부담하면 된

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100%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사고 유형과 가입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상해·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을 보장한다. 자세한 상품별 보장 내용은 가까운 농·축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지현 기자**